

“금호타이어 정상화·함평 이전…더블스타 조속 결단하라”

퇴직자모임 “200여 협력업체 존립 위기…지역경제 피해 눈덩이”
민주노총 “노동자 고용불안 현실화”…사측 구체적 자구책 제시 촉구

금호타이어(금타) 화재 피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측의 피해대책 마련과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타 경영권 의사결정권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지역 정치권 등을 향해 ‘함평 빛그린 산단 공장 신설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타 퇴직자모임인 평생동지회는 28일 오전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타의 실질 경영권을 가진 더블스타는 조속한 국내공장 정상화를 위해 공장 이전 및 설비 투자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퇴직자들이 해결해야 하거나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민이자 금타에 몸담았던 노동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단체는 “금타 광주공장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휴업공고를 냈다”며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공장 협력업체 수는 설비부품사 720여개, 원재료 구매사 110여개 등 총 830개 업체이고 이중 광주시 소재 협력업체는 213곳에 달한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광주 소재 협력업체 납품금액만 연간 288억원이 넘고, 금타 화재로 인한 광주공장 하루 평균 생산 손실액은 27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금타 광주공장은 일반직 351명, 기능직 1853명 등 총 2204명이 일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단체의 우려다.

단체는 “과거 금타와 유사한 타이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금타도 회사 차원의 빠른 결단이 없으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장갑곤 평생동지회 위원장은 “광주공장은 금타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퇴직자들이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자본 더블스타의 공장이전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이 정상화 돼야 다른 국내공장(곡성·평택) 존속도 가능하다”면서 “더블스타의 조속한 협상과 정상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금타에서 2년전 퇴직 했지만, 그때도 공장에는 상시적으로 화재 위험이 도사렸

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고, 더블스타가 공장 이전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금타 화재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타는 광주시민의

사람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금타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일자리가 멈춰선 2500여 노동자를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금타는 하루속히 광주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신속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타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자 고용 위협 없는 신속한 공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된 금타는 독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 경영권 의사결정은 더블스타에 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 운영 전략’…광주전남벤처포럼

공공 클라우드 등 대응 전략 모색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협회)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대구 통합 전산센터 운영 전략’을 주제로 제24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도입,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 제고,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확립 등을 목표로 세우고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조재영 NHN CLOUD 이사는 공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SaaS) 도입 활성화를 위해 SaaS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이사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소개해 공공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광주



가 보유한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NHN CLOUD와 힘을 모아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AI 관련 벤처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 결혼 스튜디오 가격 150만원…‘서울 강남 수준’

‘스드메’ 패키지 계약금 전국 최고
1인당 식대 6만원…식당 대관 최저

결혼을 준비하는 광주·전라지역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결혼 스튜디오 가격은 서울 강남과 동일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처음으로 공개한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스튜디오 촬영 기본가격은 150만원으로 서울 강남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35만 원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광주지역 드레스는 148만원, 메이크업은 32만원으로, 메이 크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식장 필수 비용 중 대관료는 광주가 100만원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전라는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식대는 광주 6만원, 전라 4만 6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전국 평균은 5만 8000원이다.

또 스드메 패키지 계약 금액은 전라(전남·전북) 지역은 결혼식장 예약 기준으로 345만원이었으며, 14개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았다. 광주 스드메 패키지 계약 금액은 341만원으로 전국 2위였다.

소비자원은 다만 결혼 서비스 업체 중 332곳(63.6%)이 표준화의 어려움과 경쟁사 노출을 이유로 계약금 외에 전체 총 스드메 패키지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결혼식장 예약은 주로 예식실로부터

1년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55.3%로 가장 많았다.

이번 가격 조사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원하는 지역의 상품 가격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지역별 결혼 서비스 가격을 매월 조사하고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통해 격월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계약 기준으로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식장(370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152곳) 등 모두 522곳의 계약 금액을 조사하고 지역별 가격 편차를 고려해 중간 가격을 대푯값으로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대 폭 개선

전월보다 2.8p 오른 90.7

평균 수준 밀돌아 여전히 비관적

미국 관세 유예 등 영향으로 이번 달 기업 체감경기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장기 평균 수준을 밀돌면서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했으며, 이달엔 지난 2023년 5월(+4.4p) 이후 2년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다.

지수 수준 자체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100선은 한참 밀돌았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밀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해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장기평균선 100은 밀돌고 있어 아직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달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미국 관세 유예 영향은 단기적인 호재이기도 하고, 이달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한 편이라 이러한 개선세가

이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7)는 자금 사정(+1.3p)과 업황(+1.1p) 등을 중심으로 4월보다 1.6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87.1까지 떨어진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로, 지난해 7월(96.0) 이후 최고치다.

비제조업 CBSI(88.1)도 자금 사정(+1.0p)과 채산성(+1.0p) 등이 개선되면서 3.6p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최고치로, 석 달 연속 올랐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 2023년 5월(+6.0p) 이후 가장 컸다.

6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9.5), 제조업(93.1), 비제조업(87.1) 모두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3.2p, 3.1p, 3.3p씩 상승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석유정제·코크스, 비금속 광물, 화학물질·제품 등이 호조를 나타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정제 마진·화학 업종 이익 개선 기대가 있었고, 계절적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남 영향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건설업 업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비제조업 실적은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2.2로 전월보다 4.7p 상승했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광주~고양·광주~아산 신규 운행

금호고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광주 유스퀘어에서 경기도 고양시와 충남 아산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광주~고양 노선은 하루 2회 운행하며 광주 출발 오전 8시 10분, 오후 4시와 고양 출발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 40분이다. 거리는 4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광주~아산 노선은 기존에 천안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3회 연장 운행한다. 광주 출발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2시 20분과 아산 출발 오전 9시, 오후 3시, 6시 노선이 있다. 소요 시간은 3시간 5분이다.

운행 요금은 광주~고양 3만 8300원, 광주~아산 2만 5000원이며 ‘고속버스 터미널’나 ‘터미널 Go’ 어플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선

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충남권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062-360-8715)으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670.15 (+32.95)
코스닥	728.79 (+1.68)
금리 (국고채 39년)	2.314 (-0.026)
환율 (USD) 〈오후 4시 35분 기준〉	1372.90 (+3.40)

국산·수입차 14개 브랜드

전기차 화재 예방 무상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의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테슬라를 비롯한 국산 차 5곳, 수입차 9곳 등 총 14곳의 제작사에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 점검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제작사에 무상 점검을 권고한 데 따라 이들 브랜드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진행된다.

현대차·기아, 폭스바겐·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는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스텔란티스는 지난 4월부터 점검을 진행 중이며,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는 이달부터 점검에 나서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검 항목은 고전압 배터리의 상태와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의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기업 모집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노후화 이용시설 개·보수 등 지원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올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은 노후된 사내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을 개·보수해 근로 환경을 개선했다.

또 광주상의는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에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설명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했다.

이는 신규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와 재직자의 근무 유지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상의는 올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또는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상으로 참여 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5개사를 선정하고 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월 24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1명 채용 시 최대 450만원, 2명 이상 채용 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한상원 회장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면 신규 고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로(062-350-5894, 5897-8)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